

美, 마두로 압송…트럼프 “정권이양까지 베네수 통치”

한밤중 특수부대 투입, 안가 급습·체포…‘마약 테러리스트’ 등 혐의 재판예정
트럼프 ‘망명 야권인사 지지’ 리트윗…베네수 부통령 “유일한 대통령 마두로”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이날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뒤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옮겨 태웠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명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서반구 소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다. 교전 과정에서 미국 측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마두로 대통령은 결박당한 채 미국으로 압송됐다. CNN과 MS NOW 등 미국 매체들은 이날 오후 마두로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마약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 또는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5천만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점은, 외국 영토를 공격해 정상을 체포·압송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한 미국 측 대응 논리다. 마두로 체포 주체도 미국 법무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리라고 자택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면서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운영(run)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며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그룹’과 협력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야권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는 마차도에 대해 “현재로선 그녀가 지도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매우 좋은 여성이나,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차도와 합세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위협했던 망명 정치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로의 정권 이양을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일각에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파트너로 거론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녀가 루비오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면서도, “그녀는 마두로가 임명한 부통령”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소집한 비상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

과 병행해 미국 석유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 병력도 물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함대는 현재 위치(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치인과 군인들은 마두로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에 “아주 규모가 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

할 것”이라며 “(그 회사들은) 그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25년 전 우리가 설치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교체할 것”이라며 인프라를 복구해 “석유를 훨씬 더 큰 규모로 팔게 될 것”이고, 이 돈으로 “나라를 돌보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이 인프라를 복구하고 원유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지상군 주둔도 “약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상군을 두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우리는 사실 어젯밤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상군 투입을 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이란 시위 하메네이 강경 진압 시사…사상자 속출

경제난으로 축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폭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시사했다.

AP,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방송을 통해 “우리는 시위대와 대화해야 하지만, 폭도들과 대화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며 “폭도들은 그들의 자리에 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통화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환율에 대한 상인들의 항의는 정당하다’면서도 ‘직’에게 선동되거나 고용된 사람들에 이러한 상인들 뒤에서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반응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란에선 민생고가 원인이 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란 당국은 초기엔 방어적으로 대응하지만 시위가 격화되거나 장기화하면 ‘폭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경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폭도’의 배후를 이스라엘이나 미국 등 이란의 ‘적’으로 지목해 강경진압을 정당화한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날까지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사망자가 최소 1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샴페인 폭죽, 천장 달자 불 번져”…생지옥 된 휴양지

스위스 술집 화재 수백명 애도 발길

들뜬 분위기의 새해맞이 파티. 젊은이들로 가득 찬 술집에서 바텐더가 샴페인 병 위에 폭죽을 끊은 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순간 술집 천장에 불꽃이 빙거붙고, 삽시간에 화마가 술집을 집어삼켰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 화재 생존자들이 증언한 불길의 시작점은 샴페인에 꽂은 작은 폭죽이었다.

현장에 있었다는 프랑스인 생존자 엠마는 프랑스 방송 BFMTV에 “몇몇 병들이 천장 가까이에 있었고 불이 불었다”며 “천장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이 빠르게 번졌다.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화재로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이자 흥겨운 파티가 열리던 크랑 몽타나의 술집은 생지옥으로 바뀌었다. 약 200명이 탈출하려고 좁은 층계 참에 몰리면서 서로 밀쳤고, 부상자들이 계단을 막으면서 빠져나가기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텔레그라프가 확보한 영상에서는 파티를 즐

기던 사람들이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방안에 갇혀 있고, 출구는 인파에 막힌 모습이 확인된다.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는 한 남성은 BBC 뉴스에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 있었고 옷가지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참혹했던 현장 모습을 전했다.

이번 화재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주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밤부터 화재 현장 인근에서 수백명이 눈물 속에 애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